

인문도시 광산, 세계시민 향한 물꼬 트다

‘빛의 인문학’ 2017년까지 2억8800만원 투입

강좌·체험·인문주간 등 27개 그룹별 강좌



월봉서원

경제적 풍요로만 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도시에서 삶을 일구어온 사람들의 오래된 이야기와 체험,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전통문화유산에 바탕한 정신적 풍요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광산구가 광주교육청, 전남대 철학연구소와 진행하고 있는 ‘빛의 인문학 강좌’도 그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광산구 등 3개 단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문도시 광산, 빛의 인문학’과 함께 세계시민을 향한 물꼬를 트다(이하 ‘빛의 인문학’)를 추진한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인문도시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17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모두 2억8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빛의 인문학’은 앞으로 3년 동안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주간 등 3가지로 구성되며 27개의 그룹별 맞춤강좌로 꾸며진다.

올해는 인문학 강좌 진행 기법을 공유하기 위한 2차례의 인문포럼과 15개의 인문학강좌, 광산구 곳곳을 답사하는 인문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오는 3월부터 열리는 강좌들은 동서양 문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문제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3월4일 무양서원 작은도서관에서 첫 개강하는 ‘인문학으로 대동사회와 우리 고전의 주제 되기’는 한국의 고전을 바탕으로 한국근현대사를 분석하면서 우리 인문학의 뿌리를 찾아가는 강좌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자료를 통해 ‘문화상대주의, 미녀상’, ‘좋은 사회, 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나’ 등 주제를 다룬다.

주민참여플랫폼인 아름다운송정씨에서는 3월4일부터 ‘주변을 넘어 연대의 정치로’ 강좌가 진행된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경제와 다양한 실험들이 소개되는 강좌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인 ‘편한집’에서는 3월4일부터 ‘미혼모, 커밍아웃하다’ 강좌가 진행된다.

광산구·시교육청, 전남대 공동

‘미혼모, 커밍아웃하다’ 등 강좌

월봉서원·송정5일시장 답사도

3월24일 개강하는 ‘인문고전 산책’은 성덕고에서 열린다. ‘노자’ ‘논어’ 등 고전을 통해 현대를 사는 지혜와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1월부터는 광산구 산정동 주민들을 위한 ‘인문 숲 여행’(장소 광주여성세로일하기 지원본부, 마을 주민들이 만든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를 이

아기하는 ‘도시공동체의 안과 밖 이야기’(영계마을에 작은도서관), 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이야기’(꿈꾸는 도서관), 예술과 과학 등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인문학, 삶의 성찰에 나서다’(코오롱 하늘채문고), 경제학 강좌인 ‘경제학, 경쟁을 넘어 공존의 철학으로’(도래샘 작은도서관), 공동체에서 새로운 자활과 새로운 희망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한 ‘함께하는 인문학’(광산어등 자활센터), ‘인문학 사랑방: 공동체와 그 경계에서’(광산자활센터)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월봉 기대승, 용아 박용철 등 광산구의 전통적 인문자산과 송정역 매일시장 등 지역민의 삶의 공간을 답사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고봉 기대승의 서간에 나타난 선비의 삶과 내면의 울림’을 주제로 월봉서원을 답사하면서 서원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삶과 삶이 어우러지는 곳, 다문화 교류의 터’를 주제로 송정리역, 송정5일장, 송정매일시장 등을 둘러볼 계획이 다.

또 월계동 장교분, 명화동 장교분, 신창동 유적지, 신흥동 5층 석탑 등을 탐방하는 ‘삶의 역사적 흔적을 찾아서’, 용아 박용철 시인의 생각을 답사하고 시 낭송 대회 등을 여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자세한 강의 일정 등은 광산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sa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960-828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방자치 아이돌 A.V’·‘루버스틱’ 무대

천원의 낭만 23일 문예회관 소극장

‘천원의 낭만’ 2월 행사가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4인조 혼성 성인 동요 밴드 ‘지방자치 아이돌 A.V(어메이지징 비주얼)’와 4인조 일렉트로닉 밴드 ‘루버스틱’의 무대로 꾸며진다. ‘내 안의 또 다른 소리’(Alter Ego Sound)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지방자치 아이돌 A.V’는 ‘난 니까’, ‘말이야’, ‘그날이 다가온다’, ‘삿보로에서 온 여자’, ‘동물이 되자’ 등을 들려준다.

‘루버스틱’은 ‘I hate you’, ‘Nothing From Now on’ 등을 선사한다. ‘천원의 낭만’은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매달 한차례씩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입장료 1000원을 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문의 062-226-2030.

/김미은기자 mekim@



루버스틱

지방자치 아이돌 A.V

어린이 눈높이로 본 고흐의 삶



문희영 ‘...세상을 노랗게 물들이다’ 펴내

빈센트 반 고흐처럼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하는 화가도 드물다. 동서양을 통틀어 가장 사랑 받는 화가로 알려진 고흐는 살아생전 한 점밖에 그림을 팔지 못했던 불운한 화가다. 고흐의 삶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려낸 동화책이 출간됐다. 신세계 갤러리 큐레이터 출신 문희영(39) 씨가 펴낸 ‘빈센트 반 고흐, 세상을 노랗게 물들이다’(사계절)는 고흐의 삶과 예술을 다룬다.

사계절출판사가 준비한 ‘빛나는 미술사’ 8번째 시리즈로 기획된 책에는 불운한 화가 고흐의 삶과 철학, 예술혼이 녹아 있다. 기존의 ‘괴짜 화가’ 이미지에서 탈피, 고흐의 진솔한 삶과 작품 세계에 초점을 맞췄다.

책에는 이야기 구성을 위해 총 36점의 작품이 실려 있다. 밀레 그림을 그리던 습작기부터 남프랑스 시절의 그림, 유작과 같은 ‘까마귀가 있는 밀밭’까지 대표 작품도 수록돼 있다. 고흐와 함께 읽는 그림 해설은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일러스트레이터 오승민의 일러스트레이션이 삽입돼 있어 명화 감상의 재미를 배가시킨다.

문 씨는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고흐의 그림은 아름답다”며 “어려운 속에서도 꿈을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던 그를 통해 감동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에 전원범 시 조명

80편 수록 ‘살아간다는 것은’

교훈 담은 ‘이야기로 ...’도 펴내

광주일보 신춘문에(72년) 출신 전원범 시인이 시선집 ‘살아간다는 것은’(인간과 문학사)과 예화집 ‘이야기로 이야기하다’(타임기획)를 펴냈다.

시선집은 그동안 출간된 시인의 여러 시집 중에서 골라 뽑은 80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평소 언어 조탁과 서정성 본질에 충실했던 시인의 시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선인들이 살다간 발자취, 교훈이 담긴 예화집은 일상 생활부터 자연, 고전, 우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담고 있다. 한번 읽고 잊히는 게 아니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경구와 예시 등이 수록돼 있어 교육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전 시인은 “우연히 접하게 된 짧은 이야기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맞게 해주며 어려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된다”며 “생활 속에서 만나는 시원한 샘물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의 불씨와 마음의 양식이 된다”고 말한다.

한편 전 시인은 광주교육대학 교수와 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손뚝만 아프게 남아’ 등 9권의 저서를 펴냈다. 현대 아동문학사, 소파문학사, 방정환 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광역

대산프리모기발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